

12-37 (통권 제 508호)

2012. 10. 1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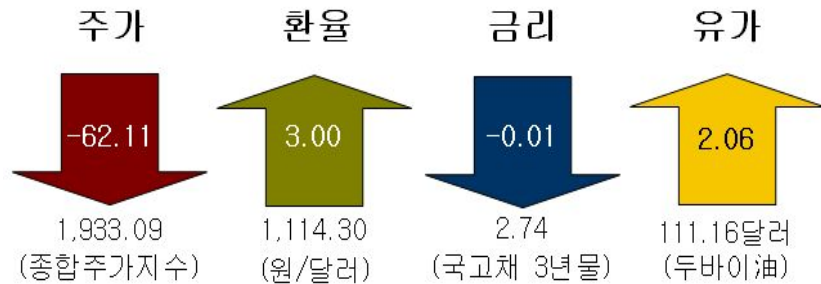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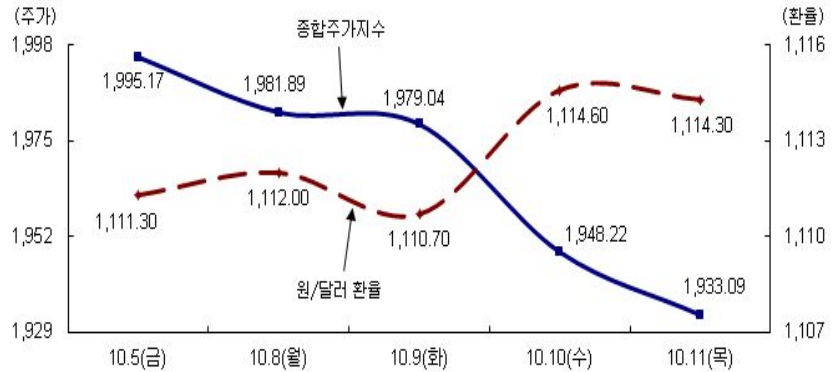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성장률 급락과 국민 행복
-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관건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5~10.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성장률 급락과 국민 행복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조 호 정 선임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성장률 급락과 국민 행복,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관건

○ 한국경제 성장률 급락

-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5% 내외로 급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 행복감 변화

-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행복감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8.5%가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15.4%만이 '좋아졌다'고 응답
 -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38.6%), 자영업자(44.0%),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50.0%), 중졸 이하 학력자(40.9%)의 행복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현재 행복한가에 대한 의견

- 우리 국민들의 50.9%는 '보통이다'고 응답
 - 현재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50.9% 는 '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40.5%는 '그렇다', 8.6%는 '아니다'고 답변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직업별로는 안정적인이라 평가받는 공무원, 학생, 직장인들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자산과 소득은 많을수록 행복
 -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대전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서울이 33.1%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조사됨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20 대 여성 경기지역 공무원, 자산-소득 많은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중졸 이하 50 대 이상 남성, 자영업 종사자,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산 1억원 미만'의 응답자였음

○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

-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 >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순으로 조사됨
 - 행복감이 각 요인에 얼마나 영향을 받지는 질문한 결과, '많이 받는다'에 응답이 경제적 요인 62.3%, 개인적 요인 58.4%, 사회적 요인 42.3%, 정치적 요인 29.2%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줌
- 경제적 요인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의 62.3%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

- 답. 특히, 40대, 자영업, 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경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
-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소득' 49.1%, '물가' 35.4%로 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가계부채' 7.9%, '주택가격' 7.6%로 응답률이 낮음
 - 개인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행복감에 가장 영향이 크며, '노후준비', '건강', '가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우리 국민들의 58.3%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행복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향을 거의 없다는 응답자는 1.1%로 낮게 나타남
 - 20대 미혼,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들의 행복감이 개인적 요인과 높은 관련
 - 사회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양극화',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사회적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응답자는 42.3%인데,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별로는 40대의 행복감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양극화 36.6%, 강력범죄 33.3%의 영향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 19.5%, 학교폭력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정치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낮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정치인 비리 등은 국민들의 행복감을 낮추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의 51.8%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20.1%는 '정치권 비리'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여 '흠집내기식 선거' 16.8%, '정당간 다툼' 11.2%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차기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할 요인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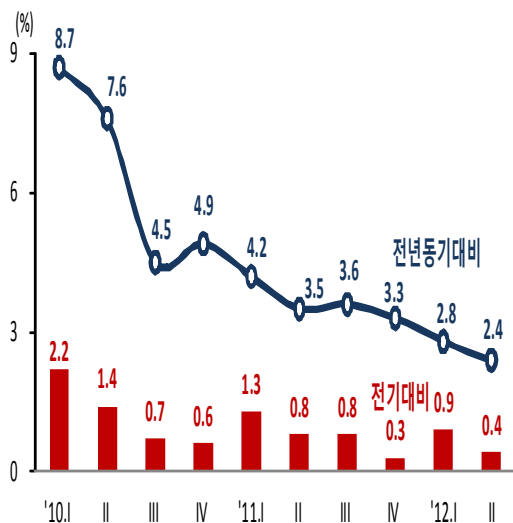
- 차기정부는 국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경제적 요인'에 가장 집중해야
 - 차기정부가 국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관심 가져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경제적 요인' 56.3%, '사회적 요인' 31.2%, '정치적 요인' 9.2%, '개인적 요인' 3.4%의 순으로 응답되어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 자영업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서울 거주자들은 '소득', '물가와 연관된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여성 고액 자산가 고학력자들은 '강력범죄'와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차기정부가 국민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 할 정책은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대'
 - 우리 국민들은 행복감 제고를 위해 차기정부에서 꼭 실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물가 안정' 38.4%, '일자리 증대' 24.8%로 꼽았으며 '복지 확충' 12.8%, '민생치안 강화' 11.4%, '경제민주화' 10.3% 순으로 응답함

1. 한국경제 성장률 급락

-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5% 내외로 급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5%로 급락했으며, 연간 기준 성장률도 2.5% 내외로 급락할 전망
 -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5%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의 월별 증가율도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 중
 - 최근 잠재성장률은 3.8%로 낮아졌는데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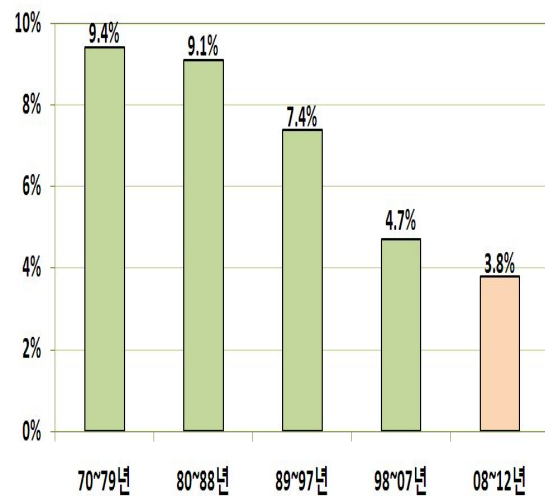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행복감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에 앞서,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 최근 성장률 급락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HP필터링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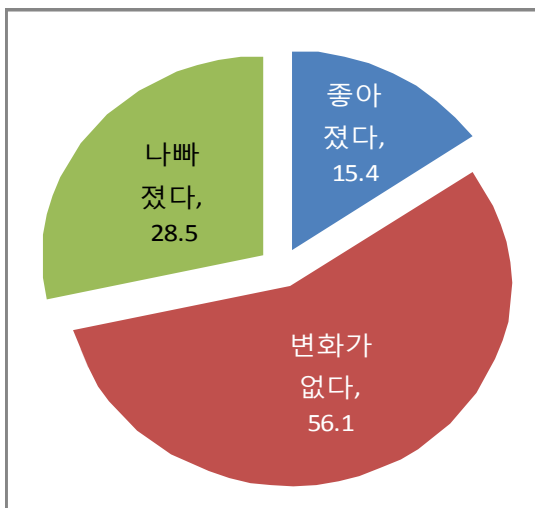
2. 저성장시대 행복감 제고 방안¹⁾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행복감 하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8.5%가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15.4%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행복감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28.5%에 달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행복감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28.5%는 행복감이 나빠졌고, 56.1%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좋아졌다'는 15.4% 보다 높았음
-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저소득·저학력의 취약계층일수록 행복감이 크게 하락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4.0%)의 행복감 하락이 두드러짐
 -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38.6%), 자영업자(44.0%),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50.0%), 중졸 이하 학력자(40.9%)들의 행복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금융위기 전후 행복감 비교>



< '나빠졌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 >

분류	응답자 특성	응답자 비율 (%)
연령별	50대 이상	38.6
직업별	자영업자	44.0
소득/수준별	100만원 미만	50.0
자산규모별	20억원 이상	40.0
학력별	중졸 이하	40.9
지역별	전라·제주	32.6

주: 응답자 비율은 행복감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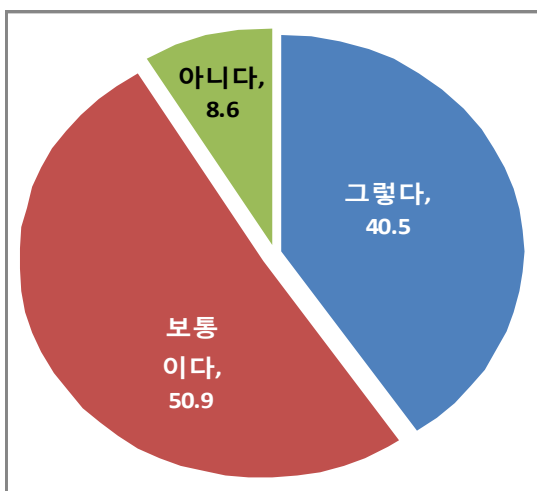
1)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도'와 관련하여, 지난 9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709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68). 별첨(P.11) 참조.

(2) 우리 국민들의 50.9%는 행복감이 '보통'이라고 응답

○ (국민들의 행복감 보통) 현재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0.9%가 '보통이라고 응답

- 우리 국민들의 50.9%는 '보통', 40.5%는 '그렇다', 8.6%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
 -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행복감이 높아. 20대의 45.5%, 30대의 44.4%, 40대의 41.9%가 행복하다고 답변한 반면, 50대 이상은 33.2%만이 행복하다고 응답
 - 직업별로 보면,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공무원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학생과 직장인들의 행복감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행복감도 높아서 대졸 이상의 국민들 중 42.5%는 행복하다고 응답함
 - 자산·소득규모별로 보면,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
 - 인천/경기와 대전충청권은 각각 45.8%, 4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서울이 33.1%로 가장 행복하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20대, 여성, 경기지역, 공무원, 자산·소득 많은 사람'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20대, 여성, 미혼, 충청지역, 공무원, 자산/소득 많은 사람'
- '가장 불행한 사람'을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중졸 이하, 50대 이상, 남성, 자영업 종사자,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산 1억원 미만'의 응답자였음

<우리 국민들은 현재 행복한가?>



<가장 행복한 사람 VS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20대	50대 이상
여성	남성
공무원	자영업자
고소득자	월소득 100만원 미만
고액자산가	자산 1억원 미만
대졸 이상 학력	중졸 이하
인천/경기	서울

(3)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 행복감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이어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이 정치·경제·사회·개인적 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질문한 결과, '많이 받는다²⁾.'는 응답이 각각 29.2%, 62.3%, 42.3%, 58.4%로 나타나, 행복감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남

- 이어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순서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
- 정치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으며, 의외로 '개인적 요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소득'이 국민의 행복감 제고에 가장 중요) 행복감이 경제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62.3%가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7.9%만이 '적게 받는다'고 응답

- 40대, 자영업, 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경제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40대의 72.1%, 자영업자의 71.0%가 행복감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함
- 특히, 고소득자, 고학력자일수록 경제적 요인에 따라 행복감이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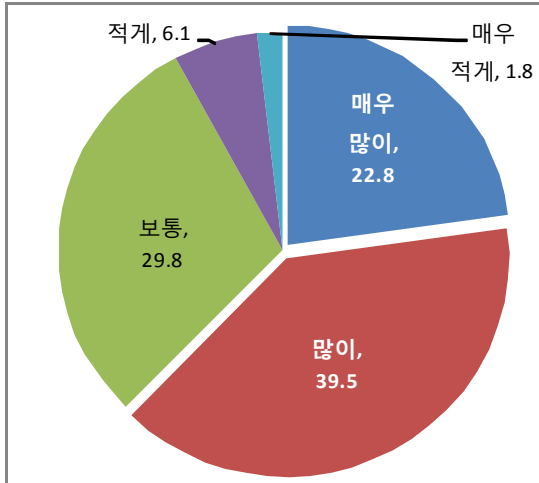
-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소득'(49.1%), '물가'(35.4%)가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됨

- 30~40대, 자영업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20대, 학생, 저소득자들은 '물가'에 보다 민감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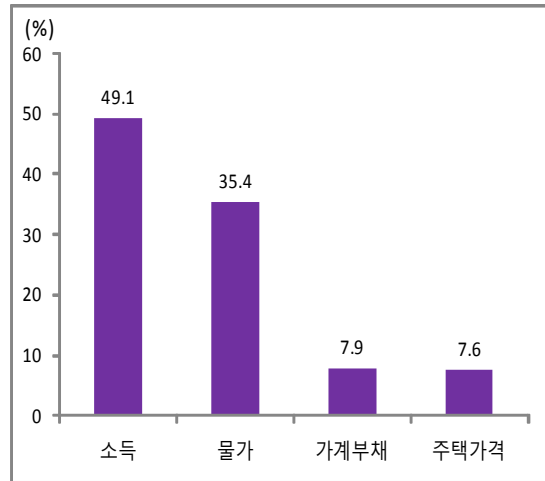
2) '매우 많이', '많이', '보통', '적게', '매우 적게'의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매우 많이'와 '많이'라고 답한 결과를 합친 것

- 한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각각 7.9%, 7.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경제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요인>



○ ('노후준비'가 행복감에 중요) 행복감이 개인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58.3%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7.0%만이 영향이 적다고 응답하여, 개인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노후준비, 건강, 가족, 친구, 취미 생활 등 개인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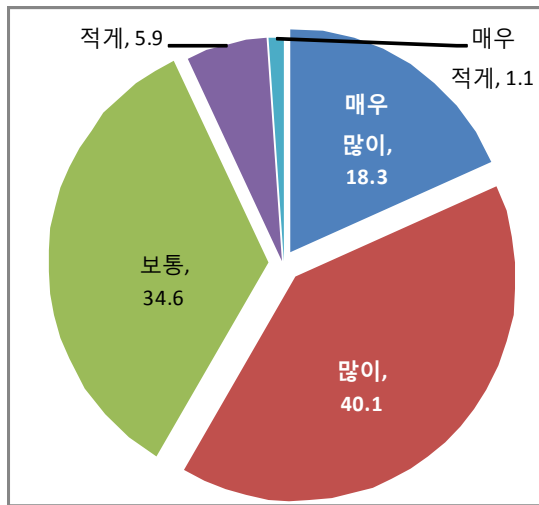
· 개인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응답은 1.1%로서, 정치적 요인 12.8%, 경제적 요인 1.8%, 사회적 요인 3.9%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20대, 미혼,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행복감과 개인적 요인 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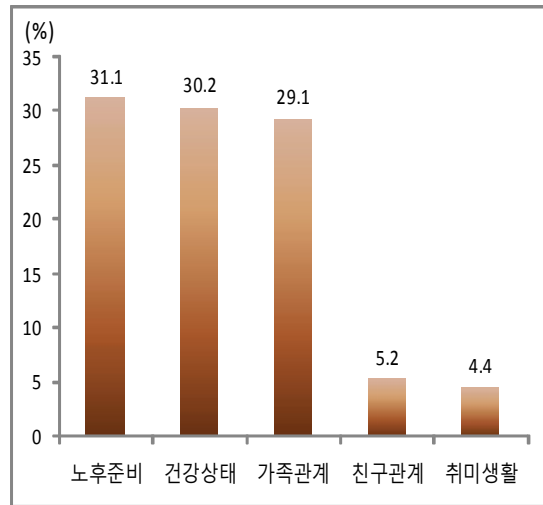
-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노후준비'(31.1%), '건강상태'(30.2%), '가족관계'(29.1%)가 비슷하게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됨

- 20~30대는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가족관계(37.2%)를 꼽은 반면, 50대 이상은 노후준비(40.5%)와 건강상태(38.7%)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외에 친구관계(5.2%)와 취미생활(4.4%)은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개인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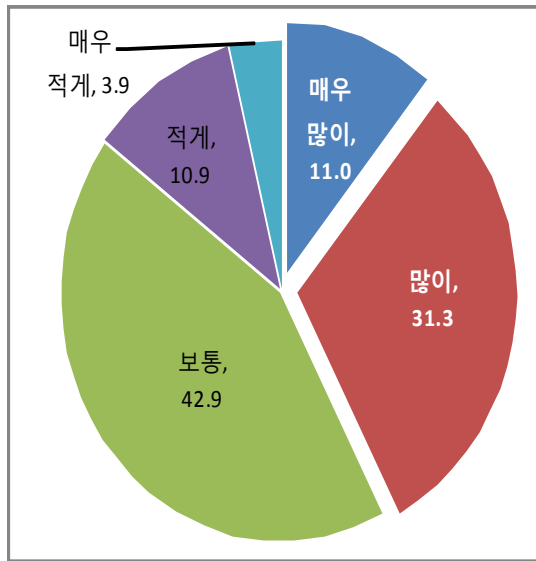


○ ('양극화'가 행복감을 저해) 행복감이 사회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42.3%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14.8%는 영향이 적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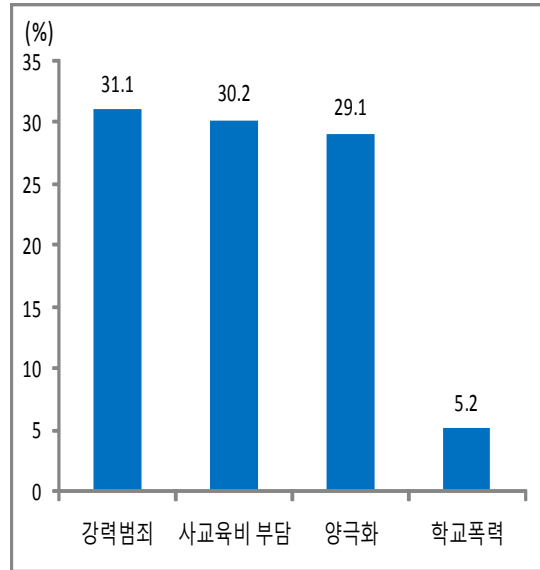
- 사회적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응답자는 42.3%로 경제적, 개인적 요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
-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의 50.6%가 사회적 요인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양극화'(36.6%), '강력범죄'(33.3%)가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 및 관련 언론보도가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남성은 양극화(46.6%), 여성은 강력범죄(41.9%)가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이라고 응답함

- 20대, 미혼, 저소득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50대 이상, 자영업자, 고소득, 고학력자들은 '양극화'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높은 사교육비 부담, 학교 폭력도 개인의 행복감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19.5%, 10.6%로 나타남

<사회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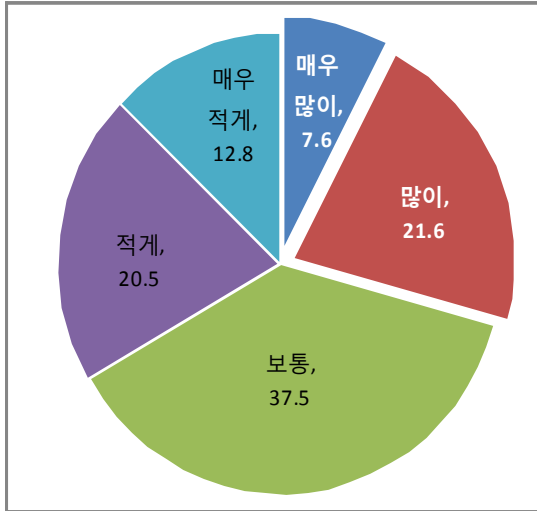


○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 행복감이 정치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29.2%만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33.3%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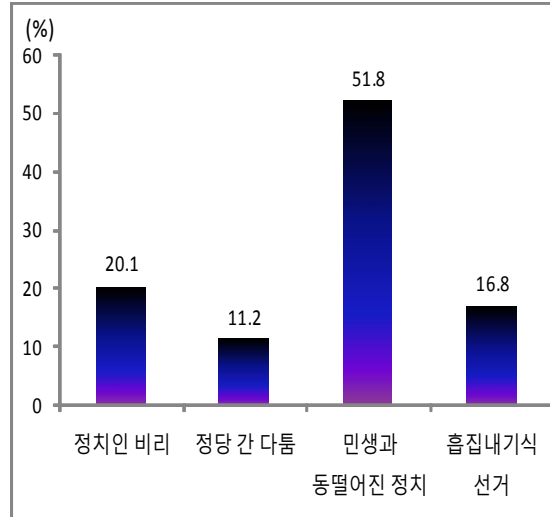
- 40대, 전문직, 서울·호남제주권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됨
 - 40대는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가 33.7%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전문직도 66.6%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서울과 호남제주권이 33.8%로 타 지역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개인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함
-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51.8%), 정치인 비리(20.1%)가 국민들의 행복감을 가장 낮추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
 - 우리 국민들의 51.8%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20.1%는 '정치권 비리' 때문

에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흠집내기식 선거'(16.8%), '정당간 다툼'(11.2%)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정치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요인>



(4) 차기정부는 국민 행복감 제고를 위해 경제적 요인에 집중해야

○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 차기 정부에서 국민들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경제적 요인 56.3%, 사회적 요인 31.2%, 정치적 요인 9.2%, 개인적 요인 3.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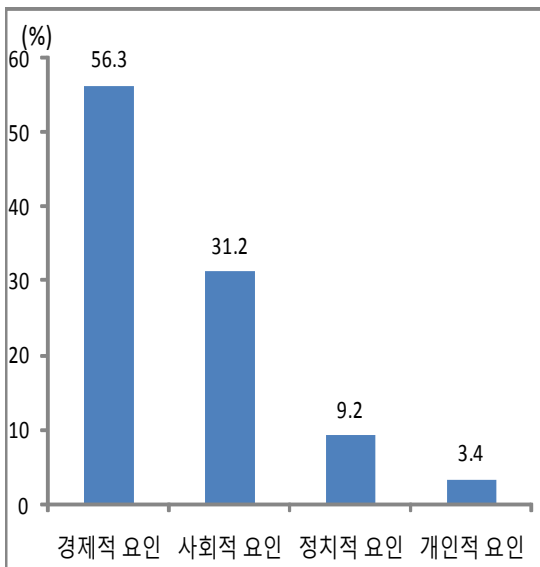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행복감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요인으로도 '경제적 요인'을 꼽고 있음
-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자영업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학력자, 서울 거주자들이 차기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물가', '일자리', '가계부채' 등 경제적 요인의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함
- 반면, 여성, 고액 자산가, 고학력자들은 '강력범죄'와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요인에도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5) 차기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와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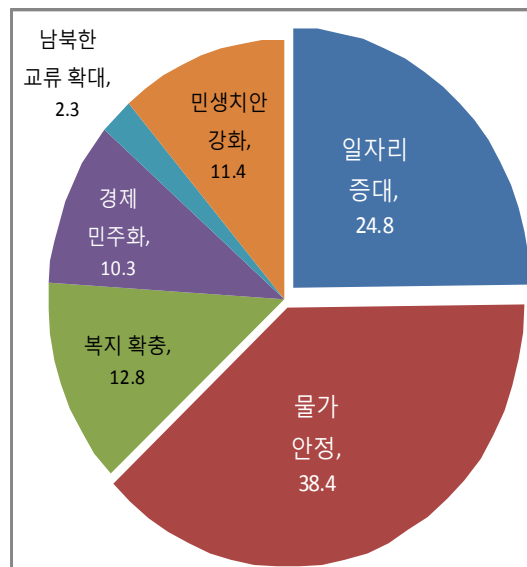
○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대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 차기 정부에서 국민들의 행복감 제고를 꼭 실행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물가 안정 38.4%, 일자리 증대 24.8%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우리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일자리 증대 등 서민경제의 보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 보완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여성, 20대, 서울과 대전충청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증대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들과 무직/기타 직군 및 100만 미만 저소득,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대 등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는 복지 확충, 민생치안 강화, 경제민주화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됨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요인>



<차기정부가 국민 행복감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할 정책 과제>



3. 시사점

-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2년 9월 말 현재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20대, 여성, 공무원으로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추정
 - 한편,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졸이하 50대 이상의 남자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추정됨
- 低成長期에 더욱 낮아진 국민들의 행복감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첫째, 국민 대다수는 소득과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 기후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단계별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도 완화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낮은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각각에 대한 일자리 공급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증대
 -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도 요구됨
 - 셋째, 2013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
 - 또한, 2013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

경제연구본부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조 호 정 선임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별첨. 설문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 기간 : 2012년 9월 20일 ~ 9월 26일 (7일간)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따른 전국 709명 전화설문
- 오차 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 3.68
-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기혼	미혼	기타
명	344	365	145	169	172	223	503	194	11
%	48.5	51.5	20.5	23.8	24.3	31.5	71.0	27.4	1.6

구분	직업별							소득수준별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가사	학생	무직/기타	100만 미만	100~300	300~500	500~700	700만 이상
명	313	100	9	46	138	63	40	46	257	274	108	17
%	44.1	14.1	1.3	6.5	19.5	8.9	5.6	6.6	36.6	39.0	15.4	2.4

구분	자산규모별					학력별			
	1억 미만	1억~5억	5억~10억	10~20억	20억 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명	235	370	76	14	5	44	171	463	29
%	33.6	52.9	10.9	2.0	0.7	6.2	24.2	65.5	4.1

구분	지역별						지역특성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호남 제주	부산 울산·경남	대구 경북·강원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명	148	190	71	86	116	98	336	307	66
%	20.9	26.8	10.0	12.1	16.4	13.8	47.4	43.3	9.3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0월 5일	10월 1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75	1.67	-0.08%p
	엔/달러	81.19	80.66	77.66	78.53	78.12	-0.41¥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019	1.2857	-0.0162\$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610	13,326	-284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863	8,547	-31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75	2.74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11.3	1,114.3	3.0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95.2	1,933.1	-62.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0월 5일	10월 1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9.86	92.22	2.36\$
	Dubai	88.80	106.75	104.89	109.10	111.16	2.06\$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7.62	308.87	1.2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